

정근식 “교육감 자사고 권한 약화 우려… 개정안 재고해야”

〈서울시교육감〉

교육부, 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삭제 논란 서울교육청 “위임 한계 무시” 반발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와 관련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3개 항목을 삭제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5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했던 교육청의 권한이 없어진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으며,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

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상고는 하지 않았다.

정 교육감은 “당시 소송 2심 판결 이후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적 판단하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같은 달 25일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안을 두고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지정 종료는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현행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

다고 하는 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라며 “교육부는 지정취소 대신 지정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위법성이 해소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삭제된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회계부정,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자사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시행령에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는 부정 회계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이 없는데 시행령에는 담겨있어 법과 시행령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어르신 일자리 9만 명 시대… 질적 개선 과제

서울시, 참가자 수 9만 명 돌파 단순 노동에 그쳐 근로 만족도 낮아 양적 성장 이어 질적 변화 모색해야

서울시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참여자수가 증가했으나, 대부분이 저임금·단기·단순 노동에 그쳐 공공 일자리 확대와 동시에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어르신 일자리·사회 활동 지원 사업의 참가자수는 지난 2021년 8만 4895명에서 2022년 8만 8043명, 2023년 8만 8745명, 작년 9월 기준 9만 6546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크게 4가지 유형(▲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사업단)으로 나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익 활동형은 어르신이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 활동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시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1인당 활동비로 월 29만원(30시간)을, 부대 경비로 연간 18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기간은 평균 11개월이며 안부를 묻거나 말벗이 돼 주는 ‘노노(老老) 케어, 학교 급식 및 스쿨존 안전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

경력·역량 활용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서

울시민이면 10개월간 참여 가능하다. 1인당 활동비로 월 63만 4000원(60시간)을, 부대 경비로 연간 212만 4000원을 지원한다. 식품·공산품 제조, 카페·택배 등의 업무를 맡는 시장형의 경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1인당 연간 267만원이 지원된다. 취업 알선형은 60세 이상 시민에게 민간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내용으로 실시되며, 부대 경비로 1인당 연간 15만원이 투입된다.

이수아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공공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보이나, 고령자의 역량과 욕구를 반영한 질적 고도화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어르신 일자리가 주로 단순 노무직으로 구성돼 직무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낮은 임금 수준과 반복적인 일자리 수행으로 근로 의욕과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정 기자 hjk1@

고양시, 2030년까지 30만개 일자리 창출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규모 개발

고양시가 2030년까지 총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통해 30만 개 일자리를 마련하고, 고양을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리브랜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그동안 주거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작은 충격에도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스타벅스,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처럼 고양시도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를 이루기 위한 리브랜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2030년까지 1,000개의 벤처기업과 약 1만 2,000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방송

영상밸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약 5만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특히 “일산테크노밸리와 제2자유로 지하도로를 연결하고, 60만 평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은 상반신 청을 목표로, 총 9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도 중요한 발전 전략으로 언급됐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교통망을 확장하며, 킨텍스 제3전시장의 건설과 함께 주요 도로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국내외 대형 국제행사 및 관광형 일자리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고양시 내 개최 종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중장년 취업 위한 ‘직업 훈련·디지털 교육’ 참여자 모집

서울시, AI·빅데이터 등 교육 지원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 직업 훈련’과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4050 직업 훈련은 중장년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약국 사무원’,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승강기 유지 보수 인력’을 포함 14개 과정을 시작으로 총 1320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서류와 면접 등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되면 권역별 5개 캠퍼스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AI·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스마트 워치 등 최신 기술 분야를 다루며,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날부터 30개 과정·755명을 시작으로, 연간 127개 과정·총 3070명을 차례대로 모집한다.

4050 직업 훈련과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취업에 의지가 있는 서울시 중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50+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1월 14일 (화)

음력 : 12월 15일

수도권 날씨

1 ~ 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46 해질 / 17:46

연천 -12/5 동두천 -12/5 가평 -12/6

파주 -12/4 서울 -6/5 양평 -8/6

인천 -4/3 수원 -5/4 용인 -5/4

평택 -8/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中 2024년 수출 증가율 7.1%, 무역흑자 1400조 원... 트럼프 앞두고 밀어내기?
 ▲‘방한’ 이과야 日외무상, 현충원 참배... 방명록엔 서명 /사진 뉴스1

▲中 왕이 이르면 내달 방한... 정부 “고위급 교류 긴밀 소통중”
 ▲美·日·필리핀, 온라인 정상회담... “中 염두 해 양안보 등 협력 지속”

▲LA산불 사망자 24명... 당국, 수감자까지 동원해 진화 총력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 로고 발표